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감사인사
2019년 가족 수련회에 참여해 주신 '사랑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 가을 성경공부 안내
8월 21일 수요일예배는 전도 및 선교 위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위원분들은 순서를 준비해 주세요(사회, 기도, 헌금기도, 특송)
- 임시 공동의회 안내(임직 피택 투표)
임직자 피택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9/22(주일)에 있습니다.

- * 교역자 부임 - 이기쁨 전도사 가정(중고등부, EM 소그룹 인도)
- * 교역자 휴가 - 정요한 목사(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9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일예배	친 교	안 내
8/25		김유순	수련회	한순자
9/01	김유신	배인순	우드사이드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베데스다 연못에서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

- 기도제목: 1.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은 결코 희망고문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2. 베데스다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3.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소서.

희망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결코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가리켜 희망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늘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고문과 같지는 않는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고문과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으면 그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상관없이 다 나음을 얻는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 중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는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동안 아파 누워있는 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자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나에게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희망을 품고 연못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일 년에 한 번, 내내 내려올지 언제 내려올지 전혀 예고 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마냥 연못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기에 누구보다 빨리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2. 베데스다 연못과 유대교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요한복음 앞장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종교였던 유대교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은 그 당시 유대 종교를 보여줍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너무나도 부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면 가능하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환자들의 상태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한계이며 율법의 한계, 그 당시 유대종교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붙들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유대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방식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38년 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너 낫기를 원하니?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방식을 보여 주십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은 어떠한가요? 베데스다의 방식은 필요한 사람이 연못에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먼저 찾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는 과정을 보면 38년 된 환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왜 고침을 받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고침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이었습니다.

나가는 말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베데스다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희망고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소망은 결코 고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은 우리들의 소망들이 응답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8,9월 행사

- 9월 10일 - PCA 한인 동북부 가을 노회
- 18일 -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 19일 - 성경공부 가을학기 시작
- 22일 - 임시 공동의회(임직자 피택을 위한 투표)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시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말씀: 유기천 목사 본문: 창29:21~35절 제목: 사랑이 뭐길래? (레아와 라헬) -뉴욕 천성장로교회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토요 새벽기도회
▲ 찬 송 Hymn	예수 우리 왕이여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말씀: 김호진 전도사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2번(시편143편)	
찬 송 Hymn	91장	
기 도(Prayer)	최홍만 장로	
성 경 Scripture	요한복음 6장 1~15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오천 명	
▲ 헌 금 Offering	71장	
▲ 찬 송 Hymn	하연이에게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